



## 이 다윗 안나 선교사 기도 편지(GP.USA)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Tel:714-774-9191,301-250-8856.

E-mail:gpacad1@gmail.com Home page: <http://www.gplink.org>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중국 복음의 동역자 되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主内平安! 주안에서 평안 하셨는지요?

사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펜데믹으로 일년 가까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평안의 인사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살고있는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주안에서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과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은 지난 7월 미국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중국 정부에서 외국인 입국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 하루속히 이전과 같이 중국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시 사역을 할수있는 날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상황으로는 빨라야 내년 후반 아니면 내후년 초에나 다시 중국 입국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함께 동역하며 사역 하였던 중국의 교회들과 신학교는 중국 정부의 핍박으로 문을 닫고 성도들은 대부분 뿔뿔히 흩어져 있는 상태이고 극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만 집에서 모여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중국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들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핍박과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국 교회들과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이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인내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 나갈수 있도록 중국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께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답답한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확 시원하게 해주시는 희망의 소식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저희 부부의 마음에 생수를 주었던 소식을 나눕니다,

금년 10월 중순경 일본으로 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중국인 자매는 저희 부부가 1996년 내몽고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게된 자매입니다. 당시에는 내몽고 대학 학생 이었는데 지금은 40대 중반으로 아들 둘을 낳고 일본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내몽고에서 사역을 하다가 1999년 후반에 내몽고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추방 당한후 전혀 소식을 몰랐었는데 20여년이 지나 뜻밖의 전화를 받은 것 입니다. 자매님은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 유학을 가게되고 일본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일본에서 남편을 만나 지금은 자녀들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자매님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 선생님과 사모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20여년 전에 이선생님 과 사모님께서 자기에게 복음

을 전해 주셔서 지금은 친정 식구 모두 와 시집 시구 모두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 입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과 사모님 일본에 오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자매의 소식을 듣고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다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치도 못했던 일 이었는데 뜻밖에 자매님의 전화를 통하여 저희 부부의 잠자고 있었던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다시 일깨어 주셨습니다. 중국 영혼들에 대한 복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렵고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 때로는 성령님의 초 자연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이겨 나갈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1년의 새해가 밝아 옵니다. 새해가 2021년 이라는 숫자로 바뀌었을 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으실 것 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의 새로운 한해를 축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당해 갈수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와 격려와 소망으로 함께 하실 것 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안에서의 복음의 동역자 형제 자매님 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중국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 1.중국 교회들이 지금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 나갈수 있도록.
- 2.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 나갈수 있도록.
- 3.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들을 성령안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 4.빠른 시일내에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 끝나고 중국 정부에서 외국인 입국 규제를 해제하여 이전과 같이 중국에 자유롭게 왕래할수 있도록.
- 5.딸 에스더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 6.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속에서 늘 건강해서 계속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수 있도록,

항상 부족하기만 한 저희 가정의 중국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지난 25년동안 늘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신 중국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께 주안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시는 은혜와 축복의 한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2월 주안에서 함께 복음의 동역자 된 이 다윗, 안나 선교사 올림

